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지침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근로기준법 제9조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무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중에 선거인 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

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고 동시간에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통령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 중 기간에 대하여는 휴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날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Q 대통령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타당하지 여부

A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 부여하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그 외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의 약정휴일은 통상 각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의 선거권 행사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677-752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여부】

Q 甲은 23년 전 시에서 철거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착비용을 보조해주기까지 한 시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년 전 저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여 현재는 제가 점유하고 있는데, 최근 시에서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는 없는지요?

A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철거민들이 각 특정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

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 라면, 철거민의 위 각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며(대법원 1995.7.14. 95다18024), 타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자는 추정된 것이 아니라(대법원 1997.8.21. 95다28625전원합의제),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甲은 위 대지가 사유지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자주점유에 해당되어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수요관리과장 나현철



이번에 심야전력 요금을 대폭 인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A 최근 고유가로 인해 심야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고비용의 LNG나 중유발전기의 가동량이 늘어나고 심야전력의 원가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심야전력 판매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니다. 따라서 금번 요금인상은 심야전력의 원가보전과 수요조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인상합니까?

A 심야전력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초생

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용 요금과 같이 20% 할인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심야전력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할인제도 도입시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오히려 5.6% 정도 경감합니다.

Q 심야전력 요금을 앞으로 계속 인상할 계획입니까?

A 심야전력 요금이 원가이하로 판매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요금인상의 사전 안내, 단계적 인상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과(031-539-023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금강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요즘 남자친구와 비디오팽을 자주 하는데, 저희가 첫 키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린지는 오래됐거든요. 키스하고부터, 진드라고 해야 하나? 그걸 상당히 빨리 지나갔어요. 자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저번에는 비디오 방에서 하자고 하길래,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중략) 쉽게 성관계를 가지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A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되어가는 것이 당황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관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생명, 사랑, 책임, 쾌락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요. 연구 보고에 따르면 남성은 사랑보다는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의 충동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이고 마지막 사랑할 때라고 답을 하였고, 여성은 사랑보다는 사랑할 때, 그리고 분위기와 마음이 통할 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떠날까봐 관계를 가졌다는 결과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과는 심리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키스를 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국이 증가 되어서 중간에 성적인 욕구를 멈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성교 요구를 참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남자 친구분에게 거절을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키스를 하고 난 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 친구 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도 핑계라고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의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잘 전달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성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의 원칙이 있고, 준비가 될 뻔 한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든지, 임신을 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등 남이 생각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장 김종명



당뇨병

당뇨병은 흔한 만성질환으로 생활양식이 서구식으로 변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발생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일단 발병하면 완치는 불가능한 질환으로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만성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통해 꾸준하고 적극적인

혈당관리를 함으로써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당뇨식사요법 원칙으로는 식사는 하루 세번, 규칙적으로 천천히 하며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는 포만감을 주므로 권장됩니다. 과자, 설탕, 꿀, 사탕, 청량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림으로 반드시 피하도록 하시며 기를 많이 음식도 피하시며 되도록 싱겁게 드시면 식욕자극이 저하되어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산책, 달리기, 줄넘기, 수영, 등산 등이 있으며 운동할 때에는

옆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고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의사는 환자상태에 따라 약물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당뇨에서는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발 관리가 중요하네 매일 발에 상처가 있는지 관찰하시고 맨발보다는 순면, 순모 양말을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매일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씻고 잘 말리고 보습 크림을 발라 주도록 하십시오.

이외에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도 당뇨 조절에 중요합니다.

당뇨에 대한 적절한 관리만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수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9)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점포가 딸린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이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주택과 점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고 당해 주택과 점포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총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내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나, 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통사항으로 건물의 지하실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인지 점포부분인지를 가리게 되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참고로 건물의 경비실 및 휴게실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의 일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대표 안 병 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기술자문 및 대관업무 상담

REAL TV - 『TV 속 세상』 2007년 5월 22일(화) 방영업체



◆변압기 부하 측정



◆발전기 엔진오일 점검